

---

## 노동부, 8월1일부터 산업안전보건 "e-자가진단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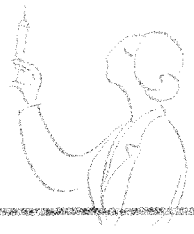
---

앞으로 사업주·관리자·근로자 누구든지 자신의 안전보건수준을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 또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체크해 볼 수 있는 "e-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e-자가진단서비스"는 사업주·관리자·근로자가 자신의 안전보건 의식이나 안전보건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점검·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단 참여자가 설문에 응하고 나면 이미 참여한 진단자들의 누적된 평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점수를 비교·확인할 수 있고 진단참여자의 안전보건 의식수준 및 인식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단점수 및 등급을 그래프로 표시하였으며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로 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으로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식 정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의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자가진단서비스"는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상에서 실시되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선착순 100명과 추첨에 의한 당첨자 20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아울러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보건관련 간행물 및 웹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결과표, 10개 국어로 번역된다

- 건강진단 항목별 설명 자료도 번역·보급, 통역 상담서비스 강화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7.27(월)부터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건강진단 결과표가 한국어로만 표기되어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리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는 10개 국어로 된 건강진단결과표와 건강진단 항목별 설명 자료를 만들고 이를 유관기관이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에 널리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진단 결과표 및 설명자료들이 모국어로 표기 되어 있어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한국어로도 표기되어 궁금한 사항들이 생겼을 때 주변의 한국인 동료 근로자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번역 자료와 설명 자료는 전국 5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보급되어 건강진단 및 관리에 활용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통역 상담서비스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내국인도 알기 어려운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임을 감안, “3자간 통역시스템”을 갖춰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통화 중에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3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7만 여명(고용허가제 기준)으로,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100여 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있으며, 2006년 TCE에 중독 되어 스티븐슨증후군 및 급성간염으로 1명이 사망하고, 2008년 3명이 DMF에 중독 되는 등 직업병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고령자에게 고용연장, 사업장에 숙련인력 확보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지속 증가

지난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가 실시된 이래, 지원 사업장 수와 인원, 지원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실태를 분석해보면, 2006년 84개 사업장에서 226명에게 6억원이 지급되었고, 2007년에는 160개 사업장 584명에게 15억원이, 2008년에는 214개 사업장 998명에게 30억원이 지급되었으며 2009년 5월말 현재 195개 사업장 1,149명에게 37억원이 지급되었다.

이와 함께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05년 2.3%에서 06년 3.3% → 07년 4.4% → 08년 5.7% (6,732개 중 384개) 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각 년도 임금제도 실태조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는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9월부터 상시 제도로 전환하면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2009년 5월 추가로 예산을 71억원 증액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전수당 지급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매년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업종에도 골고루 지원되고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있어 업종간 편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